

‘대학원중심대학’, 무엇이 문제인가

왜 ‘대학원중심대학’인가?

김 안 중

서울대 교육학과 교수

1. 서 언

외국어 공부의 한 가지 장점은 자국어의 표현으로서는 이해할 수 없는 것을 접했을 때 ‘외국 사람들은 이것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를 생각해 볼 수 있다는 데에 있다. 목하 우리의 주제인 ‘대학원중심대학’이라는 개념을 영어로 또는 독일어나 불란서어로 표현하면 어떤 표현이 될 것인가? 영어의 경우, 필자로서는 알 도리가 없다. 아마도 미국이나 영국에 가서 물어보아도 분명한 대답을 듣기가 어렵지 않을까 한다. 영어에서 대학은 유니버시티이고, 대학원은 그레듀잇 스쿨(graduate school)이다. 이때 대학원은 대학, 즉 유니버시티의 한 부분이다. 대학은 학부와 대학원으로 구성되어 있고, 학부를 마친 사람들 중에서 보다 특수한

전공영역에서 전문학위를 얻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졸업후에 계속 대학에 남아 공부를 하도록 하는 제도가 대학원이다. 다른 말로 해서, 영미에서 그레듀잇 스쿨이라는 아이디어는 특수한 분야에서의 ‘학문후속세대’를 육성하기 위해서 생겨난 것이고, 따라서 대학원 교육은 보편성을 원칙으로 삼는 학부과정과는 달리, 특수성을 그 특징으로 삼고 있다. 대학원은 대학을 마친 사람들 중에서 대학의 교수요원으로 남아야겠다고 스스로 원하는 사람들만이 가는 학교인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영어에서는 우리가 학부라고 부르는 것에 해당하는 별도의 이름이 없다. 다시 말해서 그레듀잇 스쿨은 있지만, 언더그레듀잇 스쿨 같은 것은 없다는 말이다. 유니버시티는 그냥 ‘하나’이고, 거기에 특수한 목적의 그레듀잇 스쿨이 없혀져 있는 그런 모양이라고 할까.

여기에서 한 가지 의문이 생길지 모른다. 왜

서양사람들은 대학원과는 구별되는 것으로서의 학부과정을 부르는 별도의 이름을 가지고 있지 않은가 하는 것이 바로 그것이다. 우리 식으로 보면, 이름이 없어서 매우 불편할 것 같은 생각이 든다. 그러나 서양에서도 학부라는 명칭이 전혀 없는 것이 아니다. 패컬티(faculty)라는 말이 원래 학부와 그 소속 교수, 양자를 다 가리키는 말로 있어왔던 것이다. 다만 이때의 패컬티라는 것은, 예컨대 법학부(the Faculty of Law)의 경우처럼, 대학의 학과라는 의미를 더 강하게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학부 개념과 같은 것이라고 말하기가 어렵다. 나아가서 패컬티로서의 학과와 그 교수들은 단지 학부과정에만 관계하는 것이 아니라 대학원 수준의 모든 교육활동에도 관계하는 집단이다. 다시 말해서 대학원 교육은 모두 패컬티의 권한과 책임 아래 놓여 있다는 말이다. 이 점에서 보면, 서양에서의 패컬티는 대학원보다 더 넓은 개념, 더 상위의 개념이라고도 말할 수 있다. 이 점은, 다시, 서양에서의 대학원이라는 것이 특수한 목적을 위해서 대학에 덧붙여진, '덧혀진', 별도의 과정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준다.

이 글의 초점은 서양의 또는 우리의 대학원이 대학의 '더부살이' 기구인가 아닌가를 말하려는 것이 아니라, 근래 세인의 주목을 받고 있는 '대학원중심대학'이니 '연구중심대학'이니 하는 것을 둘러싸고 나타나는 혼란을 정리해보고자 하는 데에 있다. 우리나라에서 근래 들어 대학원중심대학이니 연구중심대학이니 하는 표현들이 갑자기 유행하게 된 것은 소위 '개혁시대'를 맞이해서 우리의 대학도 개혁을 해야 살아남을 수 있다는 의식, 이른바 '개혁 마인드'가 대학에도 적용되어야 한다는 자각 같은 것이 퍼지면서부터인 듯하다. 이것은 일단 좋은 일이다. 해방후 우리의 대학은 학생들의 등록금을 처부의 표적으로 삼았던 50~60년대의 '우골탑' 시대를 거치기도 했고, 뒤이은 개발과

발전의 시대에는 너도나도 생존경쟁에서 낙후하지 않으려고 대학으로 몰려드는 젊은이들 때문에 엄청난 양적 팽창의 시대를 거치기도 했다. 그런 가운데서도 대학은 항상 국가의 정치적 불안정에 가장 민감한 곳이 되어, 한때 우리나라의 유일한 대학정책이 있다면 그것은 '데모 막는 정책'뿐이었다는 야유가 유행하기도 했었다. 이러한 와중에서 우리의 대학들이 내부적으로 많은 문제들을 누적해오게 되었다는 것은 누구나 아는 이야기이다. 그러니 이제 선진국 달성을 눈앞에 둔 우리나라에서의 대학들도 보다 정리된 모습을 보여줄 수 있어야 하고, 선진사회에서 필요로 하는 고급인력의 배출을 제대로 감당할 수 있는 체제로 개혁되어야 하리라는 의견에 반대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다. 필자도 우리의 대학이 개혁되어야 한다는 점에는 조금의 이론도 없다. 문제는 우리가 '대학의 개혁'에 어떻게 접근하는가 하는 것이다. 이 글에서는 근래에 관심을 모으고 있는 '대학원중심대학'이라는 아이디어를 중심으로 해서 이 문제, 우리의 대학을 어떻게 개혁할 것인가의 문제에 대한 필자 나름대로의 의견을 제시해보고자 한다.

2. 전문대학원과 대학원중심대학

필자가 이해하기로 '대학원중심대학'이라는 아이디어는 일종의 전문대학원 아이디어인 듯하다. 교육개혁위원회의 5·31 개혁안에서도 전문대학원 제도에 관한 언급이 보이고 있지만, 그동안 대학 4년간의 교육을 통해서 경영인, 의사, 법조인, 교사 등과 같은 전문인력을 배출해오던 것을 앞으로는 대학원을 통해서 그렇게 하자는 것이 이 아이디어이다. 여기에는 한편으로 현대사회에서 각 분야의 전문인력이 과거보다 더 많은 전문지식과 기술을 필요로 한다는 측면이 들어있고, 다른 한편으로 그동안의

대학교육이 엘리트교육체제에서 벗어나 대중교육체제로 변모해 왔다는 측면도 고려되고 있는 듯하다. 지금까지와 같은 대중교육체제로는 각 전문분야에서 필요로 하는 고급인력을 길러내기가 어렵기 때문에 기왕의 대학 학부과정은 전문인이 되는 데에 필요한 일반적인 소양과 지적 배경을 쌓는 기회로 활용하고, 이 과정을 마친 사람들 중에서 각 분야의 엘리트 전문인이 되고자 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대학원과정에서 전문교육을 실시하자는 것이다. 이 의미에서의 전문대학원이라는 아이디어는 나름대로의 상당한 장점을 가지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사실 날로 발전하는 현대문명 속에서 매우 특수하고 고도의 전문성을 필요로 하는 사회 각 분야의 엘리트 역군을 길러내는 데에는 그러한 특수분야에만 관심을 한정시켜서 집중적인 훈련을 쌓는 제도가 절실히 필요한 것이다. 특히 우리나라와 같은 발전단계에서 이러한 소수 전문분야의 엘리트 교육을 소홀히 할 수도 없는 일이고, 그것을 지금처럼 대중화되어버린 일반 4년제 대학교육에만 의존한다는 데에는 상당한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이 의미에서의 전문대학원의 필요성을 인정한다고 해서 그러한 대학원체제를 갖춘 대학을 가리켜서 '대학원중심대학'이라는 이름으로 불러야 하는가의 문제는 그다지 분명하지 않다. 이 문제는 단순히 이름을 어떻게 붙이느냐의 문제를 훨씬 넘어서서, 대학교육의 본질을 무엇으로 보며 그러한 대학교육의 본질과의 관련에서 대학원 교육의 특성을 어떻게 규정하느냐와 관련된 매우 근본적인 문제이다. 여기에서 우리가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질문은, 그러한 전문대학원 수준에서의 교육기능이 대학이 가진 원래의 교육기능과 어떤 관련을 맺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하는가 하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어떤 대학이 대학원중심대학으로 되었다고 할 때, 그 대학은 대중교육체제

화한 일반 대학교육의 성격을 떠나서, 그것을 배제하고, 엘리트교육에만 치중한다는 것인가? 만약 그렇지 않고, 일반 대학교육의 성격과 기능을 충실히 유지하면서 소수의 전문대학원을 통해서 사회의 특수한 요구에 부응하는 인력을 함께 배출하는 것이라면, 필자의 소견으로는, '대학원중심대학'이라는 말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대학은 원래부터 일반 교양교육의 기능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사회가 필요로 하는 고급 전문인력을 배출해 왔던 것이라고 보아야 하며, 따라서 대학의 이러한 근본적인 성격이 그대로 유지되는 한, 몇 개의 전문대학원이 대학에 추가된다고 해서 지금까지의 대학교육과 전혀 다른 새로운 대학이 나타나는 것은 아닌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래에 대학원중심대학이라는 말이 유행처럼 퍼지게 된 것은 무엇 때문인가? 교육개혁이나 대학의 개혁과 관련해서 우리는 종종 '대학원중심대학으로 가야 하는 것 아니냐'와 같은 말들을 듣게 되고, 이런 말을 들으면 금방 온갖 혼란스러운 생각에 휩싸이게 되곤 한다. 모든 대학이 다 대학원중심대학으로 가야 한다는 말인가, 아니면 소수의 '우수대학'들만 그렇게 한다는 것인가? 그렇게 되면 대학원중심대학만이 일류 대학이고, 나머지는 다 이류, 삼류 대학이 되는 것인가? 그렇지 않아도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의 대학들이 많은데 대학원중심대학을 국가에서 더 지원한다면, 모든 대학이 다 대학원중심대학에 줄서기를 하게 될 것 아닌가? 등등. 더 나아가서 대학원중심대학은 곧 '연구중심대학'이라는 아이디어, 여전히 그 의미가 분명하지 않은 아이디어와 무슨 관련을 맺고 있는지도 알 수 없는 일이다. 이 표현에서 드러나는 것은 지금까지의 대학들이 그다지 연구중심이 아니었다는 인식, 나아가서는 연구보다는 교육에만 치중해 왔다는, 상당히 이해하기 힘든 인식이 아닌가 싶다. 이때의 연구는 무엇이고, 교육

은 무엇이라는 것인지, 어떻게 연구는 없는데 교육만 있을 수 있던 것인지 도저히 이해하기 어려운 생각들이 이러한 표현들의 등장과 함께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필자의 소견으로는 이런 것은 모두 대학교육의 근본적인 성격과 본질에 대한 통찰을 소홀히 했을 때에 나타나게 되는 迷妄에 속하는 것이라고 보인다. 비단 여기에 언급된 몇 가지 아이디어들뿐만이 아니라 근래에 자주 언급되고 있는 학부제, 복수전공제, 계열화 등과 관련해서도 온갖 혼란된 생각들이 우리 주위에서 발견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필자가 보기에는 개혁적이고 혁신적인 이 모든 아이디어나 제도의 변화가 그동안 우리의 대학교육이 미진하게 수행해온 부분들을 보다 잘,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하도록 노력하자는 것이라는 점만 확인한다면, 굳이 그를 둘러싼 불필요한 미망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길 필요는 없다고 생각한다.

3. 대학은 하나

이 글의 결론부터 말하자면, 대학에 무슨 대학원중심대학이 따로 있고, 학부중심대학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니만큼, 대학개혁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이 이런 불필요한 말들을 만들어 내서 사용할 필요는 없다는 것이다. ‘유니버시티’로서의 대학은 하나일 뿐이다. 대학에는 ‘패컬티’가 있고, 대학의 패컬티는 고등교육기관으로서의 본분을 다 하면 되는 것이다. 개혁시대에 우리에게 더욱 절실한 질문은, 그 본분이란 무엇을 말하는가 하는 것이다. 이 점에서 볼 때, 대학은 말 그대로 ‘최고의 교육기관’이다. 대학은 한 사회가 향유할 수 있는 최상의 지적 자원을 포함하고 있고, 대학 속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활동은 바로 우리 사회가 동원할 수 있는 최상의 知性的 활동 이외에 다른 것이 아

니다. 그리고 인간의 지적 활동이나 지성의 작용은 그 자체 속에 스스로의 활동에 대한 판단의 기준과 길을 헤쳐나가는 눈을 포함하고 있다. 지성은盲目이 아니며, 그래서 지성은 그 자체 이외의 다른 것으로부터 별도로 안내받아야 할 그런 것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구의 오래된 대학들이 매 시대의 변화와 변혁을 맞이해서도 스스로를 자율적인 방식으로 변화시키고 적응시켜 올 수 있었던 것이다. 새로운 君主가 나타나서 대학에 메스를 가해야만 대학이 변하는 것도 아니며, 대중사회의 매스컴이나 학부모의 여론이 들고 일어나기 때문에 대학이 달라지는 것도 아니다. 대학은 인간의 집단 가운데서 가장 복잡한 집단이라는 성격을 가진 것으로 보일지도 모르고, 따라서 사회의 타부문에서 일도양단식으로 개혁할 수 있었던 것처럼 -그런 일이 있었다면 말이다- 보이는 일들이 대학에서는 지지부진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일지도 모른다. 그러나 이런 것은 기우일 뿐이다. 만약 대학이 스스로를 개혁해야 할 부분이 있는데도 개혁하지 못한다면, 정말 그런 일이 벌어진다면, 대학 아닌 어느 곳에서도 그 일을 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 그것이 知性社會로서의 대학의 특성인 것이다. 이하에서는 몇 가지 예를 통해서 이 점을 설명하는 것으로 이 글의 소임을 다 하는 것으로 간주하려고 한다.

그동안 우리의 대학이 연구를 하지 않는다는 비판의 소리가 귀에 따가울 정도로 있어온 것이 사실이다. 우리의 대학교수들이 연구는 하지 않고 가르치기만 한다는 것이다. 그래서 그동안의 교육중심에서 연구중심대학으로 변모해야 한다는 말도 이제는 혼한 말이 되어버렸다. 그러나 연구는 하지 않고 가르치기만 했다는 말은 무엇을 뜻하는가? 그것은 말 그대로 연구는 없이 ‘가르치기만’ 했다는 뜻이 아니라, 연구가 부실했고 그 부실한 연구만큼 부실하게 가르쳤다는 것 외에 다른 뜻일 수가 없다. 그

러므로 지금의 우리 대학에서 그동안의 교육중심에서 연구중심으로 관심을 옮겨야 한다는 그런 말은 올바른 말이 아니다. 대학에서 연구와 교육은 둘이 아니라 하나인 것이고, 교수들은 연구한 만큼 가르치고, 가르칠 수 있는 것만큼 연구한 것이다. 이 점은 앞으로의 대학개혁에 관한 논의에서 반드시 유념해야 할 점이라고 강조하고 싶다. 연구와 교육을 분리해서 생각하는 한, 강의실과 세미나실과 실험실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연구들과는 무관하게 별도의 연구보고서를 작성해야 하는 그런 식의 연구프로젝트 관행이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대학의 모든 연구비는 강의현장에서 이루어지는 연구를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야 한다. 그래야만 연구프로젝트에 너무 바빠서 강의나 학생지도를 소홀히 하게 된다는 뉘센스에 빠지지 않을 것이다.

대학의 계열화나 특성화 문제도 억지로 하려고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님을 깨달아야 한다. 대학마다 백화점식으로 모든 학문분야, 연구분야를 다 나열해 놓고 학생들에게 '그게 그거'라는 식의 획일화된 교육을 해서는 안 되리라는 점에 반대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다. 문제는 그렇다고 해서 인위적으로 어떤 대학은 어느 계열, 또 다른 어떤 대학은 어느 계열 하는 식으로 분야나 전공을 '할당'하는 식의 계열화는 절대로 성공을 거둘 수 없다. 과거에 이미 우리는 유사한 경험을 하지 않았는가? 이 일에는 대학의 다른 일들과 마찬가지로 시간과 인내심이 필요하다. 대학 외부의 여건이 변화하고 사회적 수요가 달라짐에 따라서 대학도 스스로 변화할 수밖에 없다고 믿고, 그러한 변화를 대학 스스로 나타내 보일 때까지 끈기있게 기다리는 태도가 필요하다. 인간의 지적 성장에는 시간이 필요한 것이다. 생략이나 건너뛰는 반드시 나중에 돌아와서 대가를 치르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 지성의 원리이다.

4. 대학원 교육의 내실화가 더 급선무

필자는 본지 제63호(93/5·6월호)에 대학원 교육의 내실화를 위해서 몇 가지 제언을 한 적이 있다. 그 글에서 현재의 우리나라 대학에서 대학원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기 위해서 어떤 '작은' 문제들이 개선되어야 할 것인가를 필자 나름대로의 그동안의 대학생활 경험을 통해서 언급한 적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여기에서 반복하지는 않으려고 한다. 여기에서는 다만 앞에서 언급한 대학원중심대학이라는 개념과 관련하여 필자의 소견을 개진하는 것으로 만족하려고 한다.

대학원중심대학이라는 개념은, 앞에서 지적한 대로, 근본적인 모호성을 포함하고 있는 개념이다. 만약 이 개념을 통해서 사람들이 대학에 주문하는 것이 전문대학원이라는 아이디어라면, 굳이 이런 개념을 새로 만들어서 쓸 필요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 우리의 대학이 사회의 급증하는 전문인력에 대한 요청을 충족시키는 방법은 기존의 대학원 개념만으로도 충분할 것으로 보인다. 예컨대, 법과대학에서는 보다 현실 인력수요에 맞추는 쪽으로 기존의 대학원 과정을 운용하도록 해나가면 되는 것이다. 그것을 굳이 미국식으로 로스쿨이라는 별도의 대학원을 따로 세워야 한다는 식으로만 생각할 이유가 없지 않은가? 사범대학의 경우에도 그동안 너무 많은 사범대학이 생겨나서 공급이 수요를 훨씬 상회하게 되었고, 양의 증가에 따라 질적 저하가 수반되었다는 것이 만약 사실이라면—이런 것은 상당히 정확한 수준에서의 경험적 검증이 가능한 문제인데도 아직 그런 검증이 이루어졌다는 이야기는 들어보지 못했던 것이 사실이기도 하다—, 보다 우수한 교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대학원 수준의 교육을 강

화한다는 것도 일리가 있는 일이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기존의 사범대학의 존재는 모조리 없었던 것으로 하고 어느 날부터 갑자기 모든 교원은 사범대학원 출신이어야 한다는 식의 ‘대학원’ 아이디어는 곤란하다. 그런 식으로 하려면 아예 우리나라의 기본학제 자체를 재검토하여 최고 교육기관으로서의 4년제 대학 위에 대학원을 따로 두는 것이 더 나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그것은 정말 실현가능한 아이디어가 아니다. 필자가 보기에는 그동안 내버려져 있다시피 한 대학원 교육을 현재 상태 그대로에서 더욱 내실있게 운영하는 것이 가장 급선무이다. 이 의미에서의 대학원은 대학교육의 중요한 한 부분이지, 기왕의 대학에 없었던 새로운 기능을 추가하는 것이 아니다.

제도라는 것이 다 그렇지만, 새로운 제도를 만들기는 쉬워도 한번 생긴 제도를 고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다. 그러므로 새로운 제도를 만들려고 하기보다는 기왕의 제도가 그 기능과 본분을 잘 할 수 있도록 조금씩 개선해 나가는 것이 안전한 방식이다. 점진적으로 조금씩 달라지다가 보면 언젠가는 우리가 성급하게 그려보았던 모습으로 대학이 스스로 달라져 있음을 보게 될 것이다. 오우크쇼트(Michael Oakeshott, *Rationalism in Politics*, 1962)가 그토록 잘 말했던 그대로, 어떤 인간활동 분야

든지 간에 그 활동을 가장 잘 수행하는 방식은 지금까지 사람들이 그것을 수행해온 방식, 즉 관례적 방식 속에 내재해 있으며, 진정한 ‘개혁’은 지금까지 사람들이 수행해온 방식 속에 숨겨져 있는 것을 새로이 발견하게 됨으로써 이루어지는 것이다. 서양의 교육사에서 대학과 대학원 교육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며, 우리가 지금까지 해온 대학원 교육에도 그 자체의 발전과 개혁을 위한 원리가 내재해 있다고 보아야 한다. 우리에게 현재 필요한 것은 없었던 것을 새로이 만들어내는 일이라기보다는 지금까지 제대로 해올 수 없었던 대학의 제반 여건을 보다 탄탄히 갖추도록 하고, 그럼으로써 우리 국민 모두가 원하는 내실있는 대학교육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대학이 충실하면, 대학원은 저절로 충실해질 수밖에 없지 않겠는가? ▣

김안중/서울대학교 교육학과와 동 대학원을 졸업하고 미국 플로리다 주립대에서 박사학위를 받았다. 한국 교육개발원 연구원, 한국정신문화연구원 교수로 거쳐 현재 서울대 교육학과 교수로 재직중이며, 본지의 편집 위원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주요 저서로 『플라톤의 교육론』 등이 있고, “오우크쇼트의 자유교육론” 외 다수의 논문을 발표했다.